강진 初等 통학구역위반 원상회복 진통

위반학생 284명중 68명 '버티기'

郡교육청 학부모 대상 설득나서

강진교육청이 관내 초등학생들의 통학구역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통보했으나 일부 학부형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강진교육청은 지난 7월 관내 전 초등학교 재학생 거주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앙초교 등 7개교에서 284명(15%)이 학구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학구 위반 사례가 이처럼 많은 것은 강진읍과 인접한 면 지역 학생 상당수가 읍지역 학교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읍지역 학교 선호 현상으로 면지역 학교는 침체되고 학생이 몰린 학교는 교실 부족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교육청은 8월말까지 주소지 학교로 전학할 것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강진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9월말 현재 9명만 주소지 학교로 전학을 마쳤으며 180여명은 읍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특히 전체 위반 학생의 30% 선인 68명은 전학이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마저 거부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군 교육청은 내년 신학기부터는 실제 주소지 확인 등을 통해 위장 전입을 통한 학구 위반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송기동기자 song@

장흥 유치~화순 이양 지방도 구간

국내 최장 아치주탑형 사장교 건설

장흥 유치에서 화순 이양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구간에 국내에서 가장 긴 아치주탑형 사장교가 건설된다.

지방도 839호선인 유치~이양간 도로는 총 연장 17.42㎞로 사업비 1천667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3년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된다.

특히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에 길이 140m, 높이 35m의 아치주탑형 사장교가 세워진다. 〈조감도〉

유치~이양간 확포장 공사는 교량 16개소와 터널 1개소, 8개소의 교차로가 건설되며 올해부터 편입 토지 보상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공중인 능주~이양간 국도 29호선과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면 광주~장흥간 소요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40분대로 단축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나주시의회 낯 두꺼운 외유 연기

유럽 4개국 일정 … 태풍 피해 농민 눈총에

태풍 '나리' 피해로 농민들이 큰 시름을 겪고 있는데도 외유를 추진해 거센 비난을 받았던 나주시의회가 일단 유럽 외유를 연기했다.

나주시의회는 당초 이달 중순께 1인당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국 등 유럽 4개국을 도는 9박10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추진해 왔다.

시의회는 바쁜 영농철인 데다 수해 피해도 적지 않아 연수를 일단 연기하고 다음달 다시 추진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 1명에 1명꼴인 공무원 동행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외유 연기는 거센 비난을 피해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한편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가 관광성 연수를 강행할 경우 문제점을 확인한 후 주민소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담양 첨단물류·유통가공시설 짓는다

동원산업 500억 투자 대덕면 5만㎡ 규모 … 300여명 고용창출 효과

담양군에 첨단물류센터와 유통가공시설이 들어선다.

담양군은 4일 전남도청에서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 박인구 부회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원산업㈜ 호남권 물류센터 조성 협약을 체결한다.

동원산업은 담양군 대덕면 부지 5만㎡에 500억원을 투자해 첨단물류센터와 유통가공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32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선(先) 토지매입 지원 등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정섭 담양군수는 "동원산업 물류기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원산업은 전국 16개 물류센터와 1천여대의 배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로부터 종합물류업 인증 1차 업체로 선정됐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강진에 최첨단 유리온실

영농법인 '꾸메땅' 33억 들여 연내 완공

강진에 대규모 최첨단 유리온실이 들어선다.

강진지역 영농법인인 꾸메땅은 칠량면 송정리에 대규모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를 위한 유리온실 건립에 착수했다.

강진 유리온실은 2만 500여㎡ 규모로 영양액과 물, 습도, 온도 등이 자동 제어되는 최첨단 시설로 국비와 자부담 등 33억 원이 투입돼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첨단 유리온실이 준공되면 연간 4천800여명의 고용 창출과 수출작목 다변화를 통한 내수 가격 안정 효과 등이 기대된다.

꾸메땅 영농법인은 지난 1999년 전국 최초로 파프리카 비닐온실 재배에 성공했다.

또 천적생물을 활용한 해충 방제와 무 살충제 재배 등으로 국제품질인증(ISO 9001)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체전 이정표 설치 광산구가 제 8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형 환영 이정표를 극락교(상무로) 입구에 설치했다. 높이 5m, 폭 1.5m의 이 이정표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광산구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광산구는 앞으로 고속도로 진입로와 나주, 함평 등 주요 진입로 6개소에 지역을 상징하는 대형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주민과 함께하는 정례조회

광산구 내달부터

광산구가 매달 첫째 월요일에 갖는 정례 조회를 다음달부터 직원과 주민이 함께 참석하는 열린 행사로 바꾼다.

광산구는 최근 '구청 행사문화 혁신을 위한 정례조회 고객중심 운영 및 축제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매달 직원 중 남·녀 1명씩을 정례조회 사회자로 선정하고 간부 전용좌석을 없앤다.

특히 조회 시작전 10분간 국악·성악·그룹사운드 등 미니콘서트나 직원 장기자랑을 마련한다.

구는 공연내용과 사회자, 수상자 등 정례조회에 대한 모든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해 열린 정례조회 문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선암사 일대 야생차 체험관 준공

순천시 44억 투입 … 차 전시관 등 갖춰

순천시가 44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1월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선암사 일대 5천㎡ 부지에 착공한 야생차 체험관이 4일 준공된다.

차 전시관과 강당, 산방 체험동, 차 만들기 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는 체험관에서는 각종 전통야생차를 맛볼 수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다도(茶道)를 가르친다. 특히 조계산 주변에 산재한 녹차 등 전통야생차를 시중 가격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통야생차 체험관을 선암사와 순천만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차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구례군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확정

구례군 브랜드 슬로건이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Road to Nature, Gurye·사진)'로 확정됐다. 구례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을 가졌다.

브랜드 디자인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형상화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의 구례군을 표현했다.

브랜드 슬로건은 선정에서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군민 선호도 조사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됐다.

구례군은 앞으로 지역축제와 행사 등 다양한 홍보물에 브랜드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상품 마케팅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함평군 전국 최장수郡 선포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다채

함평군은 지난 2일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 공원에서 전국 최장수(最長壽)군 선포식 및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관내 노인 1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은 건강장수 기원 나비풍선 날리기, 건강걷기, 어르신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이완영(86·나산면)씨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가 제정·시상하는 제 25회 수성노인상을 수상했으며 황하룡(74·엄다면)씨 등 11명이 모범노인과 모범가정으로 선정돼 각각 도지사와 군수 표창을 받았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